전북 수출 '먹구름'… 하락세 지속

10월 5억8717만불 기록
전년동기대비 12.5% ↓
전달 보다도 12% 감소
주력품목 자동차·선박
세계 경기에 민감 반응탓
수출기업·품목 육성 필요

전북지역 수출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도내 수출기업들이 좌불안석이다.

도내 수출기업들이 세계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선박 등 업체들로 형성된 가운데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중견 수출기업들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영준)가 발표한 '2015년 무역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전라북도 수출은 5억8,717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전달 보다 12.0% 각각 감소한 수치이다.

이 같은 수출실적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권인 13위에 그친다. 특히, 지난 8월 5억1,100만 달러를 제외하면 최근 22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출액을 기록해 전북지역의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켜진 상황이다.

품목별로는 미국으로의 섬유및화학기계(1,587.5%) 수출로 인한 부분적 급증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건설광산기계(-58.6%), 정밀화학원료(-35.4%), 반도체(-22.1%), 농약및의약품(-15.6%), 자동차(-13.0%), 인조섬유(-6.2%) 등이다.

국가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에 힘입어 21.5%의 베트남 수출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중국, 미국, 대만, 일본으로의 수출은 평균 15%대의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3억8,389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전달보다는 22.3%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5.3% 감소했다.

원자재(-8.1%)와 소비재(-12.8%)는 감소했고, 자본재(12.2%) 수입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기타금속광물(3967.6%)과 기타기계류(1,200.6%) 수입이 크게 늘었으며, 정밀화학원료(18.6%)와 농약및의약품(30.1%)의 수입도 증가했다.

김영준 본부장은 "작년 기준 수출 상위 30개 기업이 전북도 총 수출액의 50%인 43억달러를 차지했다"며 "그 중에서도 상위 20개 기업이 40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이 기업들은 주로 자동차, 선박, 반도체, 화학 등 세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수의 품목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며 "전북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려면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두터운 중견 수출기업층이 형성되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중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434억 달러를, 수입은 367억 달러로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16.6% 각각 감소했다. /김선흥기자·ksh9887@

홈플러스, 인기 수입 수산물 대전 26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캐나다산 생태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캐나다산 생태를 항공 직송으로 들여와 오는 27~29일 기간 한정 판매로 선보이는 한편 갈치와 고등어 산지를 확대해 전국 141개 매장에서 내달 2일까지 특가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한우가격 더 오르고 돼지·닭 더 내린다

돼지·닭·오리고기는 앞으로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우고기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홈페이지(www.krei.re.kr)에 게재한 12월 축산 관측 월보에 따르면 돼지·닭·오리고기는 사육 마릿수가 많아져 공급 과잉이, 한우는 사육 마릿수가 줄어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관측했다.

이에 따라 닭고기 산지가격은 다음 달 kg당 1100~1300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2월에는 kg당 1000원 이하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돼지고기 가격은 탕박 기준(뜨거운 물에 돼지를 담가 털을 뽑은 상태)으로 다음 달 kg당 4500~4800원, 내년 1~2월 4200~4500원으로 예상됐다.

이와는 달리 한우 고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연구원은 도축 마릿수가 줄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kg당 1만3993원)보다 22~36% 오른 kg당 1만7000~1만9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한눈에 보는 생활경제 TIP - 유통가 세일 소식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사케 대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모델들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2015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도내 유통업체에서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까.

겨울슈즈 할인 판매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는 '겨울 슈즈를 준비할 마지막 찬스' 행사를 진행한다. 새달 6일까지 3층 본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탠디 롱부츠를 52만 원에서 36만 4000원에, 미소페 앵클부츠는 39만 8000원에서 31만 8400원, 바바라 앵클부츠는 23만 8000원에서 11만 9000원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 겨울 하면 빠질 수 없는 '롯데 사케 대전'도 놓치지 말자. 쿠보타 30주년 기념 준마이 다이긴죠를 30병 한정으로 기존가 8만 6000원에서 6만 원에 판매한다. Lotte only 수이비는 3만 원에서 1만 3900원까지 싸게 판다.

마이산 절임배추 사전예판

농협 하나로클럽 전주점에서는 '우리 가족 김장 대잔치 2탄' 행사를 펼친다. 배추(3입)에 4900원에서 3600원, 다발무(1단) 2900원에서 2500원, 깐마늘(1kg) 8400원에서 1000원 할인된 7400원에 살 수 있다. 돼지앞다리살(100g) 940원에서 790원, 봉지굴(150g)은 2980원에서 2450원, 350g은 6580원에서 5440원까지 싸게 판매한다.

마이산 절임배추 사전예약판매도 잊지 말자. 오는 2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부귀농협 마이산 절임배추(10kg)는 1만 7500원, 20kg는 3만 2500원에 판다.

제철 먹거리 행사

이마트 전주점에서는 김장철을 맞이해 '제철 먹거리 행사'로 굴과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국내산돈앞다리수육용(100g)를 신세계포인트카드 구매시 40% 에누리해 720원 에, 남해안 손질석화(바그)는 9980원에서 6980원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인부터 증정까지 받을 수 있는 인기브랜드 식품으로 농심 맛짬뽕(4입) 4980원에 판매하며, 1입을 증정한다. 2개 이상 구매하면 1000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인기상품 300가지 가격 동결

롯데마트는 '300대 식품 가격동결' 행사로 300여가지 엄선한 인기상품을 한 달간 행사 가격 수준에 판매한다.

웰빙돈육 삼겹살(100g)은 2450원에서 1960원, 활 점보 랍스터/킹크랩(100g)은 5400원에서 3780원에 판매한다. 국내산 감자(2kg)는 3980원, 노루궁뎅이 버섯 기획(6입)은 7980원 칠레산 생 블루베리(310g)은 6900원에 판다.

제주 은갈치(1마리) 큰 상품은 9900원에서 5940원, 중 크기는 4800원에서 2880원에 판매한다.

국내산 딸기(500g/1팩)는 8900원, 황토밭 감귤(3kg)는 9900원에 팔며, 감귤·딸기를 동시 구매하면 2000원 추가 할인해 준다.

딤채 김치냉장고 139만원

롯데하이마트에서는 'K-sale 하이마트' 행사를 진행한다.

딤채 스탠드 김치냉장고가 139만 원, 삼성 스탠드 김치냉장고는 129만 원에 살 수 있다.

쿠첸 IH 10인용 압력밥솥 17만9000원, 레노버 노트북은 24만 9000원에 살 수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세린기자·iceblue@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새 야간문화콘텐츠 급부상

매주 금요일·토요일
일평균 8500여명 발길
매출도 작년보다 20% ↑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이 새로운 야간 문화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남부시장 고객 수는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야시장이 열리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일평균 8500여 명이 내방하고 있다.

분기별로 일평균 내방객을 살펴보면, 2014년 3분기에는 5900여 명, 4분기 6400여 명, 올해 1분기는 7680명 등 최근에는 7700여 명 수준으로 늘고 있다.

매출 부분을 봐도, 야시장 운영 전인 지난해 3분기 남부시장 매출액은 97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분기 107억 원, 올해 1분기 116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상인들의 매출액도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시장 야시장'은 전주 남부시장상인회에서 금·토요일 저녁시간에만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부산 부평깡통시장과 함께 행자부 주관 전통시장 야시장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상인모집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영업을 개시한 야시장은 기존 점포 바깥 통로에 간이 매대 70여 개를 설치하고 꼬치, 초밥 등 간단한 음식과 비누, 지갑 등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인근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야간시간대에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체류형 관광객 확보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청년층, 지역 다문화가정 등의 야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창업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전주 남부시장은 지난 3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야시장 여건 개선 등의 시설개선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등 최대 3년 간 50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야시장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소매용품 판매 등이 야시장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시장과 남부시장 기존 상인들과의 판매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야시장 매대 운영자와 기존 상인들 간의 1:1 자매결연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협력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린기자·iceblue@

정체불명 '민간자격증' 범람

국내 1만7300여개 중
공인자격증은 97개뿐
관련 불만상담 9060건
학원으로 인한 피해 '최다'

취업난이 늘면서, 민간자격증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공인 자격증은 0.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국내 민간자격은 1만7300여 개로 우리나라 표준 직업 수인 약 1만1400개 보다 훨씬 많지만 이중 공인 자격은 97개(0.6%)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도 매년 15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격'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9060건이다.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으로 인한 피해가 51.5%(2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업·고소득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24.9%(125건), '자격증 교재의 품질 및 관련 계약'으로 인한 피해 23.0%(1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간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로 조사됐다. 민간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는 21.9%, '잘 모른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16.8%, 상당수가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수강이나 교재구입을 유도하지 않는지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불만,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잘 알아보고 취득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세린기자·iceblue@

농관원, 창업업소 원산지표시 안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홍만의, 이하 전북농관원)은 올해 도내 4,857개 창업업소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음식점 창업자들의 원산지표시제도 위반 관련, 무조건 단속 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바로 잡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6일 전북농관원에 따르면 창업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보제공 전담명예감시원 80여명을 지정하고, 1:1 맞춤형 원산지표시 안내 서비스를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창업음식점 3,895개소를 지도했으며, 이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2개소에 전북농관원이 자체 제작한 표시판 1만매를 배부하며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고,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3개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했다.

/황성조기자·food2drink@

농진청, 겨울 축사관리 요령 소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26일 겨울철 돼지 축사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돼지 사육 농가는 겨울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축사 내부를 밀폐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 경우, 암모니아 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돼지 호흡기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폐, 점막이 손상돼 폐렴 등 호흡기 질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기는 비교적 온도가 높은 오후 2~3시 사이에 최소량만 실시한다.

찬 공기는 바닥에 깔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천장 환기구나 상층 팬을 이용한다.

온·습도도 신경 써야 한다.

축사 내부 온도 센서가 돼지가 생활하는 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따뜻한 공기는 상층부에 머물기 때문에 실제 돼지가 생활하는 바닥면은 온도가 낮을 수 있다. /황성조기자·food2drink@

중기중, 전북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현준)는 26일 오건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을 초청해 전북지역 공공구매관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바탕으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북지방조달청의 적극적인 조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건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매년 구매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도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흥기자·ksh9887@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분양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전원찬)는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전주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를 모집·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지식산업센터는 지난 1997년 준공이후 창업 초기 업체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동안 임대로 운영했으나 지난해부터 분양으로 전환했다.

입주대상업체는 전자,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계, 섬유 등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업체로 소음, 진동, 분진, 폐수 등 공해발생업체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쳐 호실당 평균 500~1,000㎡이상으로 입주업체의 희망면적에 따라 선착순 분양 가능하다.

분양가는 층별로 다르지만 ㎡당 평균 130만원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업체에게는 분양대금의 80%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김선흥기자·ksh9887@

농협은행, 계좌이동제 주거래상품 가입금액 2조 돌파

NH농협은행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비해 출시한 패키지상품인 '3종 주거래상품'이 가입좌수 64만좌, 가입금액 2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처럼 단기간에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계좌이동제에 대한 관심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고객들의 사회적인식이 고조돼 '보이스피싱보상보험 무료가입' 이벤트가 주효했으며 각종 특화서비스가 고객니즈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고객 군별로 상품을 세분화한 '3종 주거래패키지상품'을 차례로 출시해 계좌이동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NH주거래우대 패키지상품은 출시 두 달만에 32만좌, 9000억원을 돌파하고 이번주 중 1조원을 달성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황성조기자·food2drink@

/편집=김원형기자·kims7942@